

# 개미 107조 물어뒀는데… 증권사 예탁금 이자는 ‘0%대’

100만원 초과 이용료율 연 0.4~0.7%  
“금리 상승분 반영해야” 투자자 불만  
증권사 “운용수익·비용 고려해 조정”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묻힌돈을 물어두고 증시 주면을 맴돌고 있지만, 정작 증권사들이 투자자 자금에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율은 0%대에 머물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의 금리와 같은 개념으로, 증권사가 투자자 예탁금을 운용하고 지급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예탁금 이용료율이 인하될 경우 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증시 주변에 머무는 투자자예탁금이 107조6573억원(10일 기준) 상황에서 0%대에 머물고 있는 이용료율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다”, “금리 상승분을 반영하라”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0일 기준 107조6572억7600



기준금리가 연속 인상된 가운데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은 실제 자금이 몰리는 고액 구간에서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만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7000선을 밑돌았던 지난 4일 93조5499억8100만원까지 줄었지만, 이후 지수 반등과 함께 4거래일 만에 14조1072억9500만원 늘었다.

예탁금은 지난 7월 말 104조1354억원에서 8월 27일 96조709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 2일 102조2672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증시 흐름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다. 증시 조정기에 대기 자금이 실제 주식 매수에 투입되면서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다시 1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시장에 머무는 자금 규모는 여전히 크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이나 주식을 판 뒤 아

직 인출하지 않은 자금이다. 증권사는 이를 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 일부를 이용료로 지급한다.

자기가본 상위 10개 증권사 가운데 1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용료율은 미래에셋증권이 연 2.25%로 가장 높다. 키움증권은 2.0%, 하나증권은 1.75%, 메리츠증권은 1.5%를 적용한다. 그러나 100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연 0.4~0.7%로 떨어진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0.7%, 하나증권은 0.65%, 미래에셋·키움·메리츠·KB·대신증권은 0.6%, NH투자증권은 0.4%다. 예탁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 1.05%를 적용하는 삼성증권이 사실상 유일한 예외다.

최근 인상도 소액 구간에 집중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00만원 이하 이용료율을 2.0%에서 2.25%로 높였지만 초과 구간은 0.6%로 유지했다. 반면 KB증권의 100만원 초과 이용료율은 기준금리가 현재와 같은 3%대였던 2024년 4분기 1.09%에서 현재 0.6%로 0.49%포인트 낮아

졌다.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말까지 군인연금 안심통장 이용료율과 CMA 우대수익률을 연 2.60%에서 2.75%로 높이는 사례도 있다. 다만 특정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되는 상품이어서 일반 투자자의 체감도는 제한적이다.

투자자들은 높은 이용료율이 소액 구간에만 적용되는 만큼 실제 예탁 규모에 맞는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은 높은 이용료율이 소액 구간에만 적용되는 만큼 실제 예탁 규모에 맞는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금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맡기는 자금과 성격이 다르고 이용료율도 기준금리와 바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한 만큼 운용수익과 관련 비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용료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삼성전기, 실적 전망 뛰는데 주가는 뒷걸음

6월 고점 대비 주가 42% 하락  
올해 영업익 시장예상치 1.9조  
MLCC 수주 계약 3건, 총 1.8조

삼성전기의 주가가 실적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기의 주가는 3.98% 하락했다. 지난 6월 19일 기록한 장중 고가였던 241만7000원 대비로는 42.08% 떨어졌다. 증권가는 실적이 주가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삼성전기의 2026년 영업이익 시장예상치(컨센서스)는 1조946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 3개월 전보다 22.5% 높아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의 3분기 영업이익을 6363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존 추정치인 6130억원과 시장 컨센서스 5960억원을 각각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4.5%, 전 분기 대비로는 44.5% 증가했다. 매출액은 3조86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 전 분기 대비 11.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경우 고부가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퍼스케일러의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빅테크의 자체 AI 칩 생산도 늘면서 FC-BGA와 MLCC 수요가 예상치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영업이익을 2조110억원, 2027년은 3조3030억원, 2028년은 3조98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20.2%, 64.2%, 20.6% 증가하는 흐름이다.

목표주가도 오르고 있다. 이달 들어 다올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주가를 280만원으로 유지했으며, DB증권은 지난 7월 말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지 한 달 여 만에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가는 AI 부품인 FC BGA, MLCC

의 공급부족이 환율 부담을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FC-BGA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제한적인 공급 여건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 공급계약도 확대되고 있다. MLCC 역시 AI 서버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평균판매가격(ASP)이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기가 올해 공시한 MLCC 수주계약은 3건으로 총 1조8213억원에 달한다. 계약 기간은 대부분 2027년부터 시작해 2027년 말까지 이어지며, 일부 계약은 2028년 말까지다.

조현지 DB증권 연구원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협상력 자체가 공급자에게 넘어온 구도가 갖는 의미가 큰 만큼 2027년 추정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신하은 기자

## 한투증권, 글로벌 금융사와 협력 ‘맞손’

핀코·JP모건 등 CEO·임원 참석  
상품 공급·공동투자 등 협업 확대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KIS 나잇 인 뉴욕 2026’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KIS 나잇은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한국투자증권은 2024년 뉴욕에서 행사를 처음 개최한 뒤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홍콩으로도 무대를 확대했다.

올해 행사에는 핀코와 JP모건, 칼라일, 누버거, 맨그롭 등 글로벌 금융회사와 주요 투자기관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행사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소개하고 참석 기업들과 사업 확대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다양한 금융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



왼쪽부터 조지 워커 누버거 회장 겸 최고경영자, 그레그 본드 맨그롭 최고투자책임자(CIO) 겸 미주지역 총괄,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제프 네델만 칼라일 공동사장. /한국투자증권

들과 협력해 국내의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유가 100달러 돌파에 정유주 ‘질주’

정제마진·OSP 추가하락 효과 주목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정유주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8월 10일~9월 11일) GS는 22.3%, SK이노베이션은 16.31%, S-Oil은 7.45%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9% 상승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제마진을 밀어 올린 영향이 상승 배경이 됐다.

원유값과 제품값 차이인 정제마진이 커질수록 정유사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이란 전쟁으로 정유설비가 물리적으로 파손돼 복구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시장에서는 마진의 상승폭보다 지속 기간에 주목한다. 정유·유통기류 비중이 높은 S-Oil의 수혜가 가장 크고, SK이노베이션도 비슷한 흐름을 탈 것이라는 시각이다.

전유진 iM증권 연구원은 “이제는 단순히 유가 변동에 일희일비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호시황과 높아진 이익 체력, 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과 배당증가 여력 등의 모멘텀에 주목할 때”라고 짚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을 넘어선 정제마진과 공식판매가격(OSP) 추가 하락 효과 등에 주목해야 한다”며 “2~3분기 S-Oil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41\$를 웃돌고 있다. 미국 대표 정유사인

Valero 39\$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특히 중동산 원유에 대한 아시아 정유사의 구매가 줄어드는 반면 산유국의 수출 경쟁이 커지고 있어 OSP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목표주가도 뛰고 있다. 최근 2개월간 S-Oil은 5개의 증권사 가운데 4곳(미래에셋증권·유진투자증권·하나증권·유안타증권)이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최저 14만8000원에서 최고 22만원을 제시했으며, iM증권만 17만원을 유지했다. GS는 유진투자증권이 13만8000원으로 72.5%를 올려, 3사 중 가장 공격적인 상승이 이뤄졌다.

SK이노베이션은 유진투자증권이 목표주가를 17만1000원으로 올렸고, 하나증권(20만원)과 iM증권(19만원)은 기존의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흡수합병에 따른 재무리스크가 추가 상향의 발목을 잡았다.

다만 지금의 강세가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골드만삭스는 8일(현지시간) 중동 지역 선박 공격이 더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역내 원유 수출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유가가 80달러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스콧 베스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전쟁이 끝나면 공급 증가로 유가가 40~5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

## 삼성증권, 카이스트와 신탁 기부 확대

신탁 활용 생전·유산기부 활성화

삼성증권은 카이스트(KAIST) 발전재단과 신탁을 활용한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자가 삼성증권의 기부신탁 상품인 ‘Give You Trust’ 및 유안대용신탁 유산기부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과 지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기부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삼성증권 Give You Trust는 최초 신탁 가입 시 원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탁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이익은 기부자에게 귀속되며 이후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가입 시 지정한 기부처로 신탁 원본이 전달되는 생전 기부신탁 상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